

보도일시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

2024. 7. 8.(월)

'24년 상반기 연안 및 국제여객선 이용객 감소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강원도 연안여객선과 국제여객선 이용객이 '24년 상반기 105천 명으로 전년 동기 136천 명 대비 22.8% 감소했다고 밝혔다.

올 상반기 묵호-울릉 및 강릉-울릉 항로를 이용한 여객 수는 92천 명으로 전년 121천 명 대비 24.2%가 줄었다. 이는 울릉도 여행객들이 기상상황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포항·후포의 대형 여객선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강원권 연안여객선 이용객 감소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 상반기 울릉행 전체 여객 수는 총 591천 명인데, 포항지역 이용객은 500천 명으로 전체 여객 수 대비 비중이 84.5%지만, 강원지역 이용객은 15.5%에 머물렀다.

국제여객선 이용객 수도 올 상반기 14천 명으로 전년 16천 명 대비 12.1%가 감소했다.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직항 항공편은 여전히 없는 상태인데, 이전 항공편은 두바이 등 먼 거리를 경유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유 항공편이 증가했다.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동해-블라디보스토크 항로의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러시아인이 23.8% 감소했고, 하반기에도 러시아인 이용객 수는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.

다만,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턴드림호가 8월부터 동해-일본 사카미나토 항로를 본격 운항하면 러시아 이용객 감소분을 상쇄하여 연간 수송실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한편, 러시아 수출 위주인 국제여객선의 화물 수송은 8천톤으로 지난해

같은 기간 19천톤보다 58.2%나 감소했다. 배기량 2,000cc 초과 자동차 등 전략물자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1,159개*로 확대하는 데 러시아 수출제한이 원인으로 지목된다.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향후 화물 수송량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

* 「전략물자 수출입고시」 개정안 행정예고(8월)에는 1402개로 확대 예정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국제정세, 여객사업 여건 등 강원도 지역에서의 여객운송사업이 여의찮은 상황이지만, 일본항로 재개와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강원지역 여객수요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과 장	정철락 (033-520-6141)
		담당자	주무관	정재삼 (033-520-6143)

